

# 리틀아메리카에서 부산시민공원으로 -캠프 하야리아를 둘러싼 기억과 시선들-

유 현\*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캠프 하야리아의 한국인들과 기지촌 사람들의 기억
- III. 캠프 하야리아를 둘러싼 경합하는 시선들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캠프 하야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부산기지사령부로 설치된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 및 북한과의 대치 상황 하에서 장기적인 미군 주둔을 위한 리틀아메리카로 운용된 미국의 해외 전진기지였다.

2006년 한미 양국 합의에 의해 캠프 하야리아가 폐쇄되고 2014년에 부산시민공원이 개장된 이후 이 땅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급격히 잊혀 갔다. 아울러 캠프 하야리아 인근 기지촌이었던 범전동 본동마을이 공원부지에 편입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다채로운 이야기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본고의 첫 번째 의의는 캠프와 기지촌 일대의 구술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리틀아메리카와 범전동 본동마을 기지촌에서 살았던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기록하

\*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 [yoohyeon@korea.kr](mailto:yoohyeon@korea.kr)

여 그 역사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지금은 사라진 캠프 하야리아를 향후 ‘기억의 장소’로 간직할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리틀아메리카에 속한 한국인들은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미군에 의한 인종차별과 열등감을 극복해야 하였다. 캠프 하야리아 인근 범전동 본동마을은 미군과의 교류를 통해 점차 기지촌으로 변모하여 갔다. 이 곳 사람들은 미군과 경제공동체 및 문화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환경적 사회적 대가도 치러야 했다.

두 번째 의의는 캠프 하야리아에서 부산시민공원에 이르기까지 그 기저에 흐르는 문화적 매체로서 ‘민족주의’에 주목하였다는 것이다. 캠프 하야리아를 응시하는 세 가지 민족주의 시선이 존재하였다. 한미관계의 거대 이미지 담론인 친미-민족주의의 시선은 미국에 대한 근원적인 고마움으로 가득 차있었다. 이에 반해 반미-민족주의는 ‘민족해방’의 관점에서 반미운동, 미군축출, 미군기지 반환운동 등을 수행해가면서 그들의 존재감을 시민사회에 각인 시켰다, 한편 식민지 민족주의의 전통을 이으면서 다시 부활한 민족주의 시선은 시민공원 내 장교클럽이라는 기억의 장소를 일제의 잔재로 상정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주제어: 리틀아메리카, 부산시민공원, 캠프 하야리아, 기억, 민족주의, 미군기지

## I . 머리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산의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는 2차 대전 후 일본의 점령 지역을 미국이 그대로 접수하여 자국의 ‘전진 기지’ 정책의 일환으로 극동지역에 설치된 미군 군사 거점이다. 2차 대전이 끝나고 70여 년이 지난 현재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국 이상에 약 800개의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십만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sup>1)</sup> 현재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민족이나 국가 그리

1) 최상위 순위부터 나열하면 독일에 174개, 일본에 113개, 한국에 83개의 미군기지가 존재한다. 데이비드 바인 저, 유강은 역, 『기지국가』, 갈마바람, 2017, 23쪽.

고 제국보다 많은 기지를 미국은 다른 국가의 땅에 두고 있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뿐 아니라 심지어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조차도 “미국의 해외기지는 오랫동안 의문 없이 받아들여졌고, 국가 안보와 세계평화에 필수적인 당위”로 여겨졌다.<sup>3)</sup>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경우, 한국전쟁의 발발로 주한미군에 의해 설치된 공식적인 ‘부산기지사령부’로서 소련과의 냉전체제 아래 장기적인 미군 주둔을 위한 ‘리틀아메리카(Little America)’<sup>4)</sup>로 운용된 한반도 남단의 미군 전진기지였다. 1990년대 이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감축으로 캠프 하야리아의 존치 문제가 한미 간 대두됨에 따라서 상호 군사·외교·환경 문제를 타결하고 2006년에 폐쇄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부지 관리권 이양에 따른 갈등 과정을 봉합한 후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2014년 ‘부산시민공원’이라는 공공영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한편 캠프 하야리아에서 미군이 떠나고 부산시민공원을 개장한 이후에 부산시민들의 미군 기지에 대한 기억은 급격히 잊혀 갔다. 이 부지가

- 2) 미국 펜타곤에 따르면 ‘기지 소재지’란 미 국방부에 소속된 군대나 기타 조직이 ‘소유, 임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리적(지리적) 입지·땅, 시설, 땅과 시설이다’라고 정의한다. 데이비드 바인, 위의 책, 24쪽.
- 3)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 이후 하마 요새(Fort Harmar)를 시작으로 수백 개의 국경 요새를 지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서쪽으로 몰아내고 기지국가 건설의 토대를 갖추었다. 19세기 중반부터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함대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석탄 공급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기지를 활용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본격적인 미국의 팽창과 기지국가의 출발점은 1898년 쿠바 독립전쟁을 빌미로 미서전쟁 결과 쿠바에 관타나모 기지를 설치한 것이며, 같은 방식으로 1903년에 파나마에 대한 장기간의 권리도 획득하였다. 미국은 1940년 영국과의 ‘구축함-기지교환 협정’을 맺고, 2차 대전 참전 후 세계 각국과 미군 주둔 협정을 맺음으로서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지망을 구축하였다. 데이비드 바인, 위의 책, 23쪽.
- 4) 리틀아메리카(Little America)는 거대한 도시규모의 미군기지로서 군사시설, 문화시설이 완비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미군 가족을 함께 수용할 수 있으며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대표기지로서는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등이다. 캠프 하야리아의 경우 다른 리틀아메리카에 비해 규모는 다소 협소하지만 그 기능적 측면에서 가족거주와 교육의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해 왔으므로 리틀아메리카에 포함된다고 본다.

일제시기 경마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해방 이후 60여 년 간 미군과 그 가족들의 ‘타운(Town)’이었던 기억도 곧 사라질 것이다. 아울러 캠프 하야리아 3문(Gate 3)<sup>5)</sup> 앞 범전동 본동마을도 기지촌에서 공원 부지로 편입 되어 마을 외관 뿐 아니라 마을 거주민들의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필자가 캠프 하야리아와 기지촌의 이야기를 담은 구술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처럼 잊혀가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의미 있는 공간을 기억의 장소로 명명하고자 함이었다. 공식적으로는 2011년부터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부산구술사연구회의 적극 참여와 도움으로 여러 층위의 다양한 구술자료를 채록했다.<sup>6)</sup> 구술사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필자는 이를 기획하고 자료를 취합 및 편집하였으며 구술자와의 최종 구술조사 및 사진촬영도 담당하였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기억’을 주제로 한 역사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기억은 상반된 개념인 ‘망각’과의 투쟁 과정을 통해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또 다른 소재로 활용되어 특히 정치사와 구술사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sup>7)</sup> 다만 기억과 유사한 역사적 시선 즉 ‘이미지’의

- 
- 5) 캠프 하야리아에는 모두 4개의 출입구(Gate)가 있다. 게이트1은 하야리아에서 부산진 중학교 방향에 있던 공식적인 정문이었고, 게이트2는 철도 통로 등으로 초기에 설치되었다가 곧 폐문되었으며, 게이트3은 일명 노무자 게이트(Laborer Gate)로 불렸으며 캠프 하야리아에서 기지촌 마을로 빠져나가는 문으로 한국인 노무자와 미군이 출퇴근과 외출 시에 주로 사용한 통로이다. 게이트4는 현재 연지동 국립부산국악원 쪽으로 난 문인데 원래 대형 장비나 트럭이 출입하던 통로였으나 캠프 하야리아가 폐쇄될 당시에는 정문처럼 사용하였다. 따라서 캠프 하야리아의 정문이 게이트4로 잘못 알려진 경우도 많다.
- 6) 구술조사는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추진단에서 주관하고 ‘부산구술사연구회’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2011.11~2012.05) 자료집은 2015년에 임시수도기념관에서 학술연구총서로 발간하였으며(임시수도기념관, 『낮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2015) 집필진은 김정하, 류승훈, 안미정, 차성환, 차윤정, 차철욱, 최정운, 황경숙이다. 필자의 연구는 이러한 필자들의 채록을 바탕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sup>8)</sup> 한편 부산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한 건축, 조경, 행정 분야 등의 연구 성과는 많지만, 정작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역사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sup>9)</sup>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먼저 기억과 역사적 시선(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를 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2장에서는 캠프 하야리아와 기지촌의 증언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인지한 기억을 구술인물이 아닌 사건 별로 배열하였다. 따라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구술자의 증언을 취합하여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술 내용이 역사적, 인류학적, 사회학적으로 가치 있는 텍스트가 되도록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캠프 하야리아를 응시하는 세 가지 민족주의 시선을 살펴본다. 한미관계의 거대 이미지 담론의 주축을 이루는 친미-민족주의의 시선은 미국에 대한 근원적인 고마움으로 가득 차

- 7) ‘기억’에 관한 역사학 저서와 논고 중 본고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5. 제프리 K. 올릭 역음, 『국가와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름, 2006. 진은영, 『기억과 망각의 아고니즘』, 『시대와 철학』 21권, 2010. 피에르 노라 지음, 김인중 외 옮김, 『기억의 장소』 1~5, 나남, 2010. 제프리 K. 올릭 지음, 강경이 옮김,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김호연, 『역사리텔링과 상흔의 치유』, 『인문학연구』 21,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육영수, 『기억, 트라우마, 정신분석학』, 『미국학논집』 36,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알라 이다 아스만 지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7. 문화사학회, 『기억은 역사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한울, 2017. 황보영조, 『기억의 정치와 역사』, 역락, 2017. 등
- 8) 박재영, 『역사적 스테레오 타입 연구』, 『서양사론』 93, 서양사학회, 2007. 박상욱, 『그림(이미지) 원자료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경계』 76, 부산경남사학회, 2010. 박상욱, 『사실과 허구 사이의 역사이미지』, 『역사와 경계』 84, 부산경남사학회, 2012. 전진성, 『시학에서 시각 이미지로』, 『서양사론』 126, 서양사학회, 2015. 권혁용, 『이미지, 사유의 체계』, 『한국사학연구』 47, 한국사학회, 2016. 등
- 9) 캠프 하야리아 관련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차철욱, 『하야리아부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로컬리티』, 『지역과 역사』 28, 부경역사연구소, 2011. 안미정, 『부산 미군 하야리아부대의 공간적 변용과 의미』, 『지방사와 지방 문화』 16, 역사문화학회, 2013. 유현, 『부산시민공원역사관 내 도입부 천장의 문양을 둘러싼 논란과 기억의 표상』, 『석당논총』 70, 석당학술원, 2018.

있다. 이에 반해 반미-민족주의는 ‘민족해방’의 관점에서 미국을 응시하며 반미운동, 미군축출, 미군기지 반환운동 등을 수행해가면서 그들의 존재감을 시민사회에 각인 시켰다. 세 번째로 식민지 민족주의를 계승하면서 다시 부활한 전통-민족주의 시선은 시민공원 내 장교클럽이라는 기억의 장소를 일제의 잔재로 상정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본고는 미군의 해외 전진기지로서의 캠프 하야리아의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캠프와 기지촌 일대의 구술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지금은 사라진 캠프 하야리아를 향후 ‘기억의 장소’로 간직할 계기를 마련하며, 캠프 하야리아에서 부산시민공원에 이르기까지 그 기지에 흐르는 문화적 매체로서 ‘민족주의’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 II. 캠프 하야리아의 한국인들과 기지촌 사람들의 기억

부산의 리틀아메리카로 불렸던 캠프 하야리아의 역사적 흔적과 관련된 기억은 어떻게 재현되어 왔을까? 유감스럽게도 캠프 하야리아가 ‘리틀아메리카’로 존재하였을 당시에는 어떠한 기억도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 없으며 그 후 2006년 기지가 폐쇄된 이후도 마찬가지였다.<sup>10)</sup> 따라서

10) 캠프 하야리아 기지 폐쇄 전, 기지에 대한 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육군박물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문화유적조사>(2002.08.11.)가 유일하며 국제신문사에서는 <하야리아 60년>(2005) 기획 시리즈 보도하였다. 이후 2010년 캠프 하야리아 부지가 부산시에 반환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부산 연지동 유적 발굴 조사>, <하야리아 부지 진경 및 사계의 변화 기록물 제작>, <구 하야리아 부지 역사문화자산 기록화 보고>, <부산시민공원 역사문화관

기지가 폐쇄된 후 기억의 장소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억은 현재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매개물이며 망각과의 투쟁 속에서 살아남은 잔존물이다. 프랑스 역사가 피에르 노라는 이것을 ‘기억의 장소[기억의 터: lieux]’<sup>11)</sup>라 하였다.

캠프 하야리아의 경우 “기억이 망각의 먹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잡아줄 지지물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공간, 시간, 상징물”이다.<sup>12)</sup> 여기서 ‘기억의 장소’는 부산시민공원, 시민공원 내 과거 잔존 건축물, 역사관, 기록물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억에 관해 그토록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바로 기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바꿔 말해서 “기억의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기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3)</sup> 지금은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진 캠프 하야리아의 경우 아주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지금은 부산시민공원으로 변모한 지역에 과거 캠프 하야리아라는 미군기지가 있었다는 피상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을 뿐, 캠프 하야리아가 ‘지역 지식(Local knowledge)’<sup>14)</sup>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 부산 사람들

역사자료 수집 및 전시기본계획 수립>, <부산시민공원 조성 과정 이미지 자료 수집> 용역이 실시되고 캠프 하야리아 및 기지촌 일대에 대한 <구술사 자료조사>가 시작되었다.

- 11) 프랑스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알박스의 ‘집단기억’ 이론을 19 ~ 20세기 프랑스사에 적용시켜 ‘기억의 터’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여기서 ‘터[lieux]’는 구체적인 공간을 지칭하지 않고 공간의 메타포로 기능한다. 즉 그것은 단순한 기념 장소들이 아니라 진실한 기억의 부재를 나타내는 상징화된 이미지이다.(전진성, 앞의 책, 2005, 57쪽). 이러한 노라의 기획은 프랑스 공동체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에 대한 새로운 상징의 역사를 제안하면서, “지금은 위협에 빠져있고 대체로 있고 있는 민족의 기억 장소를 발굴하고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20~22쪽).
- 12) 김학이, 『민족의 기억, 민족의 상상』, 『현대의 기억 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 세종출판사, 2006, 10쪽.
- 13) 피에르 노라 저, 김인중 외 옮김, 『기억의 장소』 1, 나남, 2010, 32쪽.
- 14) 지방적 지식, 전통적 지식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원주민 또는 지역사회의

의 삶의 일부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다. 단지 한국의 ‘미국’에 대한 거시적인 이미지가 지배한다. 이것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안보와 생존 위기 상황에서 발현한 미국과 미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한국의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혈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아울러 이러한 개념은 미군주둔과 기지촌 형성에 따른 부정적 측면까지 상쇄시킬 정도로 국가와 사회의 헤게모니로 작동하였다. 그리하여 부산 시내 한복판의 ‘리틀아메리카’가 “미 군사기지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굳건히 해주는 ‘하드파워’라는 위상은 간과된 채, 소위 미국의 소비자본주의와 경제권력 등 ‘소프트파워’라고 불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sup>15)</sup> 60여 년 동안 평가되어 왔다.

구술조사만 놓고 본다면 캠프 하야리아를 둘러싼 세 종류의 한국인 기억 집단이 존재한다. 첫째 집단은 캠프 하야리아 영내에서 활동하면서 미군 및 그 가족들과 직접 관계를 맺은 기억 집단으로 여기에는 하우스보이, 군속과 노무자, 카투사, 파견 인력, 밴드연주자 등 ‘리틀아메리카의 한국인들’이 해당 된다. 두 번째 집단으로는 소위 기지촌이라 불리는 캠프 하야리아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그 중에서도 미군과 직접 관계를 가져온 사람들인 마을의 고로와 통장 및 반장, 미군 대상 영업상인, 기지촌의 여성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은 캠프 하야리아와 기지촌의 경계 밖에서 기지에 대한 지속적인 ‘시선(웅시)’을 통해 특정 주장을 펼쳐온 사람들로 시민단체, 반미운동가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일한 공간을 놓고 세 집단은 각기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셈이다.

구술대상 이외에도 캠프 하야리아와 미군에 대한 직접 경험을 가지

문화적 전통에 포함된 지식 시스템을 말한다. Wikipedia 검색, 사이트:

[https://en.wikipedia.org/wiki/Traditional\\_knowledge](https://en.wikipedia.org/wiki/Traditional_knowledge) (검색일: 2018. 11.11.)

15) 문승숙·마리아 혼 역음, 이현숙 옮김, 『오버테어』, 그린비, 2017, 25~26쪽.

고 있는 여타의 개인이나 기억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sup>16)</sup> 이들 개인 또는 기억 집단은 단순히 피상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부류들과는 구분된다. 아울러 이들의 기억이 미군과 미국에 대한 거시적이며 총체적인 이미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기억 연구에서 중요 논제가 된다.

### 1. 리틀아메리카의 한국인들과 그들의 기억

미국의 해외기지는 규모와 성격에 따라 대규모, 중간규모, 소규모의 3가지 기지로 분류된다.<sup>17)</sup> 이중 거대한 도시 규모의 대규모 기지에 해당하는 ‘리틀아메리카(Little America)’는 2차 대전 후 미군이 독일에 주둔할 당시 패전국 독일의 궁핍과 파괴, 미군의 성매매·절도·폭력, 흑인 미국병사와 독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인종적 적대감 등으로 점령자와 피점령자 사이의 긴장감이 상승됨에 따라 미군 측에서 세운 군 관리 방식 재정비 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리틀아메리카 운영의 핵심은 규율을 엄하게 정비하는 대신 군사들에게 ‘여름 캠프’와 같은 충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해주고, 군인 가족을 기지에 합류시킴으로써 해외에서도 모

16) 여기에는 캠프 하리아리에 머물렀던 미국인들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는 후술 과제로 남긴다.

17) <표1> 미군 해외기지의 분류. 데이비드 바인, 앞의 책, 2017, 79~94쪽 참고

구분	별칭 및 구분 내용	대표 기지
대규모	‘리틀아메리카(Little America)’, 거대한 도시규모의 주둔지 (군사시설, 문화시설, 군인가족 수용, 교육시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중간규모	중간 규모의 전진 작전 거점 (군사시설, 문화시설)	온두라스 소토카노 공군기지 등
소규모	‘릴리패드(Lily pad)’, 안보 협력 대상지역 및 전진 작전 거점 (미군 또는 민간군사업체 군사시설)	태국 우파타오 해군항공기지 등 (성격상 비밀 기지)

국처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기지를 조성하여 해외 주둔 장병과 그 가족들을 달랠으로써 군사력 증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18)</sup>

리틀아메리카로서의 캠프 하야리아는 다른 미군 해외기지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미 본국 인력의 관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현실적인 기지 운영을 위해서는 그 기지가 속한 현지의 인력(원주민)을 확보하여 군속 등으로 고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확보된 인력은 통역, 엔지니어, 단순 노무자들이고 이어 전신, 사무, 서비스 계통의 직원 등이 차차 보완되었다. 한편 부대 외곽 경비는 최초 미군이 담당하다가 이후 한국군 파견부대, 한국인 경비용역 등 단계적으로 대체되었다.”<sup>19)</sup> 실로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리틀아메리카의 경험을 갖게 된 셈이다.

군속 모집은 필요 인력을 차출하거나 공채 형식으로 이루어 졌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아는 사람의 추천이나 소개로 캠프 하야리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증언자 오○○는 캠프 하야리아 인근 미군 항공기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기지로 차출되었으며,<sup>20)</sup> 미군 전화교환원이었던 증언자 심○○의 경우도 범일동 교환대에서 일했는데 피란 온 처녀나 학생들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이 소문나서 동창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들어왔다. “몰라서 못 들어왔지, 알았으면 너나없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얘기다. 교환대를 다시 캠프 하야리아로 옮길 때는 인원 감축

18) 리틀아메리카 설치 결과, 상대국에게는 군인 가족 시설 건축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미군가족이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은 동맹국 방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국가 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리틀아메리카 건설과 유지를 위한 미 국방부의 막대한 재원 부담이 증가하고, 상대국에게 영구 점령으로 간주되었던 기지 주둔을 정당화시키고 기지 국가를 냉전시기 삶의 항구적인 특징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데이비드 바인, 위의 책, 79~85쪽 요약.

19) 유현, 앞의 논문, 2018, 473쪽.

20) 증언자 오○○(1922년생 부산 출신, 미 항공기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다 하야리아로 차출). 황경숙, 『캠프 하야리아 용접공 30년』,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 2015, 77~78쪽.

이 있었고 이때에는 영어 구술시험을 봐서 일부를 선발했다.<sup>21)</sup> 증언자 조○○의 경우는 오롯이 공채 방식으로 목공 기술자 실기 테스트를 거쳐 캠프 하야리아에 입사하였다.<sup>22)</sup> 그 외 주한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인 카투사는 한국군에서 차출하는 형식으로,<sup>23)</sup> 통신 등 특수업종 기술자는 해당 한국회사에서 파견하는 형식으로, 하우스밴드 연주자<sup>24)</sup>와 용역업체 근무자 등은 미군과의 계약 형태로 캠프 하야리아에서 근무하였다.

캠프 하야리아의 군속은 총반장, 작업반장, 노무자로 조직되었으며 4급에서 시작하여 10급까지 임금이 차등 지급되었다. 타 직장에 비해 월급 지급일이 정확했고, 6개월마다 보너스가 지급될 뿐 아니라 28일 단위로 월급이 지급되어 일 년에 13차례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업무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마감되고 그다지 힘들지도 않았다.<sup>25)</sup> 교환대 여직원들도 미군들 목소리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는 비교적 간단했으며, 1일 3교대로 주당 40~48시간을 근무하며 1시간 근무에 휴식시간이 30분이 보장되어 “여자들이 일하기에는 비교적 근무 조건이 좋았다.”<sup>26)</sup>

21) 증언자 심○○(1932년생 부산 출신. 부산여중 2학년 때 전화교환원으로 취직). 차윤정, 『역사 속으로 사라진 캠프 하야리아 교환대』,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106~107쪽.

22) 증언자 조○○(1932년생 부산출신. 31살 때부터 25년간 4부두 직원으로 근무). 안미정, 『하우스보이로 시작된 미군과의 인연』,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91쪽.

23) 이승만은 전쟁에서 한국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으나 맥아더는 한국군을 증가시키는 것을 거절하고 미 군대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안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한국전쟁 당시 약 70,000~80,000명의 한국남성이 카투사로 징집되었고,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약 4,000명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 문승숙·마리아 혼, 앞의 책, 2017, 378~379쪽.

24) 미 8군 기지 내 특정 클럽에서 장기 계약을 하고 연주와 노래 등을 선보이는 밴드. 한만승,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2013, 205쪽.

25) 황경숙, 『캠프 하야리아 용접공 30년』,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 2015, 76쪽.

26) 차윤정, 『역사 속으로 사라진 캠프 하야리아 교환대』,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107~108쪽.

무엇보다 리틀아메리카의 한국인 근무자들은 당시 국내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았으며 아울러 미국의 원칙주의와 실용주의를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다만 군속과 교환원 그리고 다른 한국인 용역 또는 파견 근로자는 캠프 하야리아 내 식당<sup>27)</sup>, 레크레이션센터, PX, 클럽 등 미군들의 일반 시설을 사용할 수 없었다. 캠프 하야리아의 한국인 카투사는 복무 기간 중에는 미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근무시간, 막사, 피복, 식사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였으나 PX와 클럽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고 봉급은 한국군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받았다.<sup>28)</sup>

리틀아메리카의 한국인들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선망한 미국 생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한국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군속들이 부서별로 회식할 때는 “급수에 따라 각출하고 그 돈으로 PX가서 먹을 것 사와서 식당에서 서양식으로 파티”를 열었다.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서양식 크리스마스 파티인데 이때 음식은 “양식 뷔페로 하고 술도 맥주 또는 양주를 마시고 음악 틀어놓고 댄스(양춤)를” 추며 놀았다.<sup>29)</sup> 당시로서는 흔치 않던 ‘더치페이’와 ‘서양식 파티’가 이들에게는 일상생활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구술자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캠프 하야리아의 3문(Gate 3)을 통과할 때도, 장교클럽에서 식사를 할 때도, 레크레이션 센터에 들어갈 때도, 이곳은 이른바 “평민들은 못 들어가는 곳”<sup>30)</sup>이라는 일종의 우월 의식을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자신들은 ‘평민’이 아닌 캠프

27) 1980년대에는 한국인 노무자를 위한 식당이 별도로 만들어졌다. 한국인 노무자 식당을 세우기 전에는 식사는 노무자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28) 증언자 손○○(1942년생 경북 의성 출신, 대학 재학 중 카투사에 입대). 차철욱, 『캠프 하야리아에서 미래를 찾은 카투사』,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161쪽.

29) 황경숙, 『캠프 하야리아의 용접공 30년』,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77~78쪽.

30) 안미정, 『하우스보이로 시작된 미군과의 인연』,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93~94쪽.

하야리아의 일원으로서 캠프의 출입이 가능하였다는 차별성을 은근히 강조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부산에서 캠프 하야리아 출입증을 가진 것 자체가 자랑거리”<sup>31)</sup>로서 부대 밖에서는 지역의 유지나 미군부대 중요 관계자들만이 누린 특권으로 여겨졌으며, 캠프 내 미국인학교(American school)에는 “유력 인사의 자제나 중국 국적의 화교권 학생들도 기부를 통해 입학”<sup>32)</sup>이 가능했다. 그만큼 리틀아메리카는 부산 시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1964년 캠프 하야리아에 카투사로 배치되어 미군 보급품이 가득한 감만동 55보급창에서 근무한 증언자 손○○은 냉동창고를 관리하면서 당시 한국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오렌지를 맛보았다. 그리고 매주 주말 외출 나올 때 야전잠바에 오렌지를 몇 개씩 넣고나와 서면에서 유흥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런 광경은 당시 군속이든 군인이든 미군부대 근무자들의 일상생활이었다. 증언자는 부대에서의 미국식 식사를 아주 즐겼다. 그때의 요리 이름과 풍성한 양을 아직도 기억했다. 그리고는 “미군들은 잘 먹으니까 텍사스촌<sup>33)</sup>에 가는 것이 기정 사실이고 카투사도 빠더[Butter, 버터]에 (여러가지 음식을) 잘 먹으니까 300번지에 안 갈 수가 없다”<sup>34)</sup>는 나뭇 음식(Food)과 성(Sex)에 관한 솔직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증언자도 미군들이 한국인 노무자와 카투사를 깔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는 미군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였다.<sup>35)</sup>

31) 증언자 전○○(1941년생 원주 출신, 군악대 재대 후 밴드생활). 김정하, 『캠프 하야리아의 밴드마스터』,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125쪽.

32) 증언자 이○○(1951년생 광주 출신, 한국통신 근무 중 1980년대 후반 캠프 하야리아 파견). 증언자는 당시 유명 연예인의 아들이 기부를 통해 이 학교를 나와 훗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화교권 학생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나 되었다고 증언했다. 김정하, 『캠프 하야리아의 입과 귀로』,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148쪽.

33) 동구 초량동 부산역 맞은편 대영로 243번길 주변의 과거 미군 유흥 시설이 있던 곳

34) 부산진구 범전동 300번지 주변 사창가

35) 차철욱, 『캠프 하야리아에서 미래를 찾은 카투사』,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163~170쪽.

리틀아메리카 내부 직원 외에 좀 색다른 사례도 있다. 증언자 전○○은 하우스밴드 ‘더블 샵’의 연주자로 미 8군 오디션에서 최고 등급인 더블에이(AA)를 받은 후 에이전시를 통해 캠프 하야리아 내 클럽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그는 부대 내 이동에 관한 규칙과 상관없이, “음악인들만은 부대 안에서 ‘밴드(band)’이라 말하면 어디든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고 ‘서비스클럽’ 이용도 허가”되었다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사회에서는 음악인을 천시하던 시대였으나 미군들은 밴드 단원을 음악가로서, 아티스트로서 인정”을 해준 것이다. 이 점이 증언자를 신나게 했다.<sup>36)</sup>

또한 미 8군 무대 연주자들이 “다른 무대에서 연주하는 음악인을 동료로 여기지 않아 서로 마주쳐도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sup>37)</sup>는 이야기는 그들의 자존감과 우월의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그들은 “4~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오디션을 받아야 했기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공포”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오디션의 상위 등급 유지는 수익과 직결되고 개인의 실수로 밴드 전체가 탈락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sup>38)</sup> 증언자의 밴드는 각자 피나는 연습으로 상위 등급을 유지하였고 그 덕에 의정부 2사단과 동두천 7사단까지 “최고의 밴드로 인정”을 받으며 공연을 다녔던 것이다.<sup>39)</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틀아메리카의 한국인과 미군과의 차별의 벽은

36) 김정하, 『캠프 하야리아의 밴드마스터』,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125쪽.

37) 미 8군 소단(밴드)는 세 가지 범주였다. 첫째는 오디션을 통과해 노래 공연 뿐 아니라 각종 쇼를 전국 기지를 순회하면서 선보인 플로어밴드(Floor bands), 둘째는 미군기지 내 특정 클럽에서 장기 계약을 하고 여주와 노래 등을 선보이는 하우스밴드(House bands), 그 외 미군부대 내 정규 클럽이 아니라 기지 주변 민간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연주하는 오픈밴드(Open bands)가 있었다. 한만송, 앞의 책, 203, 205쪽.

38) 미 8군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용산에 있는 주한미공보원(USIS)에서 정기적으로 오디션을 보고 실력을 인정받아야 했다. 오디션을 통해 더블A, 싱글A, B, DROP 등으로 등급을 부여받은 이들은 그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았다. 한만송, 위의 책, 205쪽.

39) 김정하, 『캠프 하야리아의 밴드마스터』,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 2015, 125~127쪽.

엄연히 존재하였다. 영화관, 불링장, 체육관, 병원 등 부대시설과 식당은 한국인 군속에게 개방 안 되고 미군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미군부대에서 계속 일하고 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차별적인 대우와 인격적인 무시도 참아 넘겨야 했다. 이후 한국인 군속은 “한미관계가 증진되고 미군부대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스스로 재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노조를 결성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 나갔다. 특히 한국인 노무자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은 “잠정적인 범죄자(도둑)으로 간주되어 퇴근시 몸수색”까지 당하는 일도 허다했다는 것이다.<sup>40)</sup>

이처럼 한국인 노무자들이 미군들에게 절도범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당시 만연했던 미군부대의 물건 ‘빼돌리기’<sup>41)</sup> 때문이었다. 군속들에게 거의 부업이 되다시피 한 ‘빼돌리기’의 수법은 몸에 숨기고 나오는 방식에서 차떼기로 실어가는 방식까지 다양했으며 “규모가 클수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미군까지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체포되어 헌병대나 경찰서에 잡혀가서도 돈으로 무마”하고 나올 수 있었다. 미군부대 군속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빼돌리기’에 적극 참여하든지, 남들이 ‘빼돌리기’하는 것을 모른 척 하든지 둘 중 하나였다. 이렇듯 미군 군속들은 소개로 인한 채용 단계에서부터 근무 생활, ‘빼돌리기’ 공범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서로 얽힌 인연이었다.<sup>42)</sup>

또 다른 카투사 증언자 탁○○은 1973년부터 캠프 하야리아의 정보 작전과와 제 3부대의 CCA(Container Control Agency)<sup>43)</sup>에서 근무하며

40) 황경숙, 『캠프 하야리아 용접공 30년』, 임시수도기념관 위 의 책, 85~86쪽.

41) 구술조사에 따르면 미군부대 물품을 훔치는 것을 부대 내부 사람들은 ‘빼돌린다’ 또는 ‘턴다’는 표현을, 부대 외부 사람들은 ‘암생이질’ 또는 ‘밤꼬당’이라고 칭했다.

42) 황경숙, 『캠프 하야리아 용접공 30년』, 임시수도기념관 위 의 책, 77~83쪽.

43) 증언자 탁○○(1944년 경북 의성 출신, 대학 재학 중 카투사로 입대). 증언자는 CCA의 전신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Conex라 하며, 전신으로 보급을 가능케 한 컨테이너의 운송으로서 이는 이른바 물류의 총화이자 화물운송의 혁명과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롬멜 독일 장군이 미국이 떨어뜨린 컨테이너에서 생일 케익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패전을 예감하였다는 에피소드에서 시작되었는데, 그야말로 컨테이

부산항에 내린 컨테이너 화물들을 각 처로 수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수송품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생필품과 식품들로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었다. “수송품 가운데 비싼 보급품을 실은 트럭은 일명 ‘황금마차’라고 불렸고, 실린 물품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텔레비전”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빼돌리기’가 시도된다. 카투사들이 “영창 가기를 각 오하고 ‘감행’된 이른바 ‘황금마차’ 털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sup>44)</sup> ‘황금마차’는 흡사 멜라네시아와 뉴기니 원주민의 ‘화물송배(Cargo cult)’의 ‘하물(荷物, Cargo)’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sup>45)</sup> 즉 외부에서 들어온 미군의 컨테이너가 그들에게 짜릿한 ‘한 탕’이라는 선물의 기회를 제공받을 ‘하물(荷物)’이라는 기대인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이 호혜적이지 못한 일방적인 ‘탈취’라는 데 차이점이 있다.

캠프 하야리아의 한국인들 중에는 주위의 인식 때문에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것을 숨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기지의 경계선 밖 한국인들의 ‘다(빼돌려서) 해먹는다’는 편견과 질서도 감수해야 했고, 이것저것 미군 PX 물건을 사달라는 부탁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부대의 기억 중에서 차마 구술하지 못한 아픔도 있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언자는 어려울 때 월급을 받아 생활할 수 있었고 아이들 대학 공부도 그렇게 시켜서 그냥 고맙기만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sup>46)</sup>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다. 캠프 하야리아 파견근무자였던 증언자 이○○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미군 철수에

---

너 운송이란 획기적인 것이었다는 의미이다. 안미정, 『한 카투사의 눈으로 본 캠프 하야리아』,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177쪽.

44) 안미정, 앞의 논문, 2013, 286~287쪽.

45) 마빈 헤리스 저, 박종렬 옮김,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1995, 129~130쪽. 리처드 도킨스 저, 이한음 옮김,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7, 308~315쪽.

46) 차윤정, 『역사 속으로 사라진 캠프 하야리아 교환대』,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 2015, 106~117쪽.

대하여 “미국은 한국을 지켜준 ‘은인’이며 이러한 혈맹에 대하여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태도”라고 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미군 주둔 역사를 기리기 위해 “캠프 하야리아 부지에 상징 기념물로 미군 항공모함을 설치할 것”을 실제로 부산시(시민공원추진단)에 제안하기도 했다.<sup>47)</sup> 비슷한 제안으로 원○○은 캠프 부지에 대형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지어 한국전쟁 참전 미군 베테랑과 캠프 하야리아 근무 경험 미군을 초청하여 한국인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부산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sup>48)</sup>

## 2. 기지촌 사람들의 기억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고, “마을에 보리가 다 자라 벨 무렵 범전동 논밭에 미군 탱크가 밀고 들어왔다.” 철조망을 설치한 후 범전동 본동마을과 부대의 경계가 “물리적인 선 긋기”에 의해 나뉘었고<sup>49)</sup> 몇 년 후 미군부대는 시설이 확장되어 리틀아메리카가 되고 본동마을은 미군기지와 공생하는 기지촌이 되었다. 기지촌 본동마을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마을의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 한국전쟁 이후 “마을 바깥 도로가에는 주로 피난민이나 외지인들이 장사를 하러 들어와 여러 종류의 상점을 열었으며, 마을 안쪽에는 낫선 외국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마을 원주민들이 집을 개조하여 셋방을 놓는”<sup>50)</sup> 형태로 기지촌 마을이 만들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원래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으나 캠프 하야리아가 들어서고 미군들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본동마을 사람들이 캠프 하야리아와 함께한

47) 김정하, 『캠프 하야리아의 입과 귀로』, 입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153~154쪽.

48)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 역사문화관 4차 정책자문회의>, 2012. 6.12.

49) 증언자 박○○(1937년 부산 출생, 범전동 터줏대감). 차철욱, 앞의 논문, 2011, 328쪽.

50) 차철욱, 위의 논문, 2011, 331~334쪽.

생활과 기억은 여느 미군 기지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군과 본동마을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제생활체’일 뿐 아니라 삶의 방식 또한 일부분 공유한 ‘문화 공동체’이기도 했다.<sup>51)</sup>

캠프 하야리아와 소통하는 기지촌의 ‘경제생활체’의 확산은 기지촌의 경제생활 변모 양상을 살펴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부분이다. 첫 소통의 매개체는 ‘세탁물’이었다. 증언자 박○○도 마을로 이사 온 후 먹고 살길이 막연해 캠프 하야리아를 기웃거리며 한국 군인에게 빨감 도움을 청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자연스럽게 군복을 세탁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sup>52)</sup> 그 후 본동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에 ‘란더리(Laundry)’라고 써놓으면 미군들이 알아서 빨랫감을 가져왔고 급기야 동네에 세탁소도 생기게 되었다.<sup>53)</sup> 우물이 없는 집에서는 도랑에서 물을 길어와 빨기도 하고 밤에 큰 개천으로 가져가 빨고 난 후 주변에 널어 말렸다. 때때로 미군에게 흰 세탁비누와 낡은 군복을 받기도 했는데, 흰 비누는 다른 곳에 팔고 군복은 염색해서 입었다.<sup>54)</sup> 얼마 후 캠프 내 자동세탁기가 들어오면서 세탁업이 마을에서 사라지자 마을 아낙네들 중 일부는 부대 안 가정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도 해주는 ‘미군 식모’ 일을 하였고, 한국 여자(양색시)와 동거하는 미군 집에서 식모 일을 하였다. 이처럼 ‘세탁물’은 지역민이 단순히 구걸하고 얻어 쓰는 경제에서 탈피하여 미군과의 초창기 ‘거래’ 형태를 띠는 점에서 이채롭다.

두 번째 매개체는 미군과 동거하는 ‘양색시’였다.<sup>55)</sup> 양색시는 원래

51) 유현, 앞의 논문, 2018, 472쪽.

52) 증언자 박○○(1930년생 경남 창녕 출신, 결혼 후 경북 의령에서 부산으로 가족이주). 황경숙, 『반평생 캠프 하야리아의 이웃』, 임시수도기념관 위 의 책, 250쪽.

53) 차철욱, 앞의 논문, 2011, 332쪽.

54) 황경숙, 『반평생 캠프 하야리아의 이웃』, 임시수도기념관 위 의 책, 251쪽.

55) 통상 미군 기지촌의 동거녀를 반어적으로 빗댄 의미의 ‘양공주’, 저속한 표현인 ‘양갈보’라 부르는 데 비해 이곳 범진동에서는 보다 순화된 의미인 ‘양색시’라 부르는 것은 특이하다(유사한 경우로 1950년대 ‘양부인’이라는 호칭도 있었다.). 이는 부대 인근에 미군과 동거하는 한국인 여성들이 많고, 또한 이들의 씬씬이나 방 월세 그리고 미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이 주가 되었으나<sup>56)</sup>, 미군과의 교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미군과 한국 여성 상호 계약에 의한 동거 관계에 들어간 여성을 칭하는 용어가 된다. 이러한 동거형태는 2차대전 후 독일의 미군 주둔지에서 많이 나타난 “소위 ‘셱업(shack-up)’이라고 불리는 동거관계로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시절에 만연했던 첩 제도를 본뜬 것으로 실용성이 강조된 관계”였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안정된 섹스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성관계와 집안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양색시 입장에서든 미군으로부터 고정된 살림 대가를 금전 또는 PX물품으로 지급 받음으로써 개인 경제를 꾸려나갈 여력이 생겼다.<sup>57)</sup>

이러한 ‘양색시’라는 매개체는 가장 먼저 본동마을에 미군과 함께 거주할 셋방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집주인의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는 “셋방 전단지 붙이기가 무섭게 방이 나갔다”<sup>58)</sup>고 하며 바깥에서는 범전동을 “월세 받아서 사는 마을”<sup>59)</sup>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생긴 양색시들이 여성 고유의 가사노동에서 탈피하여 여가를 즐기고 자신을 가꾸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인근의 옷가게, 식당, 미장원, 목욕탕 등이

---

군 PX물품 중간 연결 등으로 인하여 마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김정하, 『캠프 하야리아와 기지촌 문화』,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43쪽.

- 56)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군을 상대로 성을 팔던 여성을 ‘양갈보’라 불렀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양갈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탈각하고 ‘유엔마담’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한국전쟁 휴전 후 윤락 여성의 급증 현상으로 인한 윤리적 타락을 비꼬는 의미로 ‘양공주’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김준현,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군 관련 풍속에 대한 대중 인식변화』, 『한국민족문화』 5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전체 요약.
- 57) 문승숙, 마리아의 혼, 앞의 책, 2017, 194쪽.
- 58) 증언자 김○○(1930년생 진해 출신, 남편 직장 문제로 범전동에 이주), 차운정, 『캠프 하야리아와 역사의 그늘 속 여성들의 삶』,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 2015, 265쪽.
- 59) 증언자 정○○(1944년생 경북 문경 출신, 하야리아 3문에서 기념품 장사), 류승훈, 『캠프 하야리아 3문거리 지킴이』,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221쪽.

성업을 이루었다.<sup>60)</sup> 기지촌 본동마을 사람들이 ‘양색시’를 ‘양공주’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 번째 매개체는 단연 ‘PX물품’이었다. 미군부대의 PX물품은 미군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와 양색시 또는 전문 딜러(나까마)에게 건네지고, 수집품은 기지촌의 셋방이나 창고에 쌓아 보관하다가, 다시 소규모 ‘미제장사’나 국제시장 등 대규모 시장에 유통되어 당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소설가 박완서는 자신의 한국전쟁 시절 이미지와 경험을 토대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sup>61)</sup> 특히 “박완서의 소설과 전쟁이 맺고 있는 이 불가분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 미군 PX”이며, 그녀는 그 공간을 통해 “미국적인 것과 우리의 그것 사이의 낙차가 가져오는 모멸감을 인지”하여 작품 속에 나타내기도 했다.<sup>62)</sup> 전시에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물품들은 한국인에게는 최고의 사치품이었으며 ‘미국’ 그 자체의 이미지였다. 신수정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흥미로운 것은 이 ‘미제’에 대한 매혹이 ‘미국’에 대한 동경으로 전이되는 지점”<sup>63)</sup>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커밍스도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금으로 거리가 포장되어있고 하늘에는 환상적인 PX가 떠있는 나라로 한 걸 같이 여겨졌다”<sup>64)</sup>고 표현하였다.

60) 차운정, 『캠프 하이라리아와 역사의 그늘 속 여성들의 삶』, 임시수도기념관 위 의 책, 273쪽.

61) 박완서의 한국전쟁 관련 장편소설은 다음과 같다. 『나무』, 1970. 『한발기』, 197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972.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1995. 『그 남 자네 집』, 2004.

62)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PX 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37(2), 2016, 54쪽.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이국적인 활기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천박의 근원지가 바로 PX였다.”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세계사, 2012, 209쪽.

63) 신수정, 앞의 논문, 60쪽. “..., 그런 미제 물건이 좌관에 반짝반짝하고 알록달록하게 모여 있는 것만 보아도 즐거운 눈요기가 되었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1995. 203쪽.

64) 브루스 커밍스 저, 김동노 외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양색시와 PX물품을 주축으로 한 음성적인 경제가 기지촌의 근간을 이룬 반면, 미군을 직접 고객으로 하는 정상적인 다양한 영업도 활발해지면서 상점들이 3문(Gate 3)에 즐비하게 들어서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사는 미군을 상대하는 유흥 클럽과 기념품점, 양복점, 담요 등 잡화 장사였다. 먼저 증언자 정OO은 3문(Gate 3) 골목에서 1970년대 말 담배 가게 장사를 시작하였다가 이후 ‘고려 공예사’라는 가게를 열고 자개제품, 공예품, 금도금제품, 인삼제품, 인형, 기타 기념품 등을 판매하였다. 특히 인삼제품이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았으며 부대마을에서 살림을 차린 양색시들이 야간조명등을 잘 사갔다. 88올림픽 공식 기념품 판매점으로 등록하여 호돌이 빠지, 각종 기념우표 등을 팔았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특히 팀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훈련이 있을 때면 5,000명 이상의 미군 병력이 부산항으로 들어와 캠프 하야리아로 출입함에 따라 3문(Gate 3) 밖 부대마을은 번창하였고 4~5일 장사 잘하면 집이 한 채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고 한다.<sup>65)</sup>

어느 증언자는 서울의 큰 양복점에서 재단사로 일하다가 부대마을의 한 양복점으로 스카우트 되어 왔다. 그는 곧 빅토리아양복점이라는 자신의 가게를 열고 미군을 상대로 양복을 만들었다. 당시 이 골목에는 양복 가게가 많이 있었는데 통상 ‘세일즈(통역)’와 재단사 그리고 종업원 여러 명을 두고 있었다. 미군과 관련 외국인들은 한 번에 양복을 3~5벌씩 맞춰갔기 때문에 벌이가 좋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와이셔츠와 양복에 ‘태극기’와 ‘MADE IN KOREA’ 그리고 ‘지구를 밟고 있는 사자 로고’를 새겨 넣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기술자의 자부심과 긍지의 상징이었다.<sup>66)</sup>

---

2001, 426~427쪽.

65) 류승훈, 『캠프 하야리아 3문거리 지킴이』,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 2015, 212~217쪽.

66) 증언자 김OO(1944년생 만주출신, 양복기술자). 최정운, 『지구를 밟고 우뚝 선 용맹

증언자 엄○○은 1960년대 말 부대마을에 정착하여 공예품 장사도 하고 양복점도 열었으나 실패하고 1980년대에 ‘햇나잇’이라는 가게를 인수했다. 그 후 담요와 식음료 등을 파는 구멍가게로 바꿨는데 엄씨가 파는 품목 중 담요는 부대마을에서 미군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 미군들은 추운 한국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할 담요를 사갔으며 귀국할 때 선물용으로 한 개 20달러 하는 담요를 열개, 스무 개까지 사갔다. 또한 부대 안에도 매점이 있었지만 저녁 10시에 문을 닫아서 음료수나 라면 같은 식음료를 부대 밖에 나와서 사갔다.<sup>67)</sup>

캠프 하야리아와 기지촌은 경제생활체 뿐 아니라 문화생활체로도 여겨 있었다. 증언자 박○○은 급할 때면 캠프 하야리아 철조망으로 달려가 떨감이며, 천막이며, 심지어 애기 먹일 분유를 얻어오기도 했다. 그녀는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 캠프 하야리아 축제 바자회에서 산 티셔츠 하나를 이런 추억을 담은 채 수십 년 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 3문(Gate 3)에서 양복점을 하던 김○○은 자신의 단골 미군이 생각지도 못한 전세자금, 당시로서는 큰 돈인 60만원을 빌려주는 바람에 그토록 그가 원하던 자리에 양복점을 오픈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단골 미군은 빌려준 원금을 모두 양복으로 대신 맞춰 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한 기지촌 마을 사람들 뿐 아니라 캠프의 군속들까지도 미군과 그 가족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 미국인의 철저한 시간관념, 실용성과 합리성, 원칙주의 등과 같은 개념은 인터뷰 중에도 “그 사람들은 정확해”라며 간접적으로 자주 등장하던 이야기였다. 결국 기지촌 본동마을 사람들이 리틀아메리카 미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기억은 당시 미군부대 기지촌에서 가지고 있던 어두운 이면까지 상쇄될 정도로

한 사자, 빅토리»,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239~242쪽.

67) 증언자 엄○○(1936년생 일본 출신, 식모살이하다 미군부대 앞 개업). 최정윤, 「힘찬 인생 고비를 그러저럭 넘기고»,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286~289쪽.

‘고마운’ 것이었다.<sup>68)</sup>

기지촌의 성장은 해당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먼저 기지촌 성매매 시장의 성장은 인근 사창가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범전동 300번지라 불리는 사창가는 원래 미군을 상대하던 성매매 지역이었으나 한국인의 출입이 시작되자 미군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다. 범전동에서 통장을 오랫동안 해 온 증언자 서○○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등이 포주가 되어 300번지에서 아가씨 장사를 하었는데, 당시 업소가 60호가 넘었고 거기에서 600명이 넘는 아가씨들이 성매매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또한 “성매매 지역에는 의례히 이를 관리하는 폭력조직들이 있어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sup>69)</sup> 범전동 300번지에 있던 미군 대상 성매매 업소는 부산진구청 뒤 범전동 굴다리로 옮겨 자리 잡았다가 다시 초량 텍사스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캠프 하야리아 미군에 의한 사건사고도 기지촌의 큰 문제거리였다. 무엇보다도 캠프 하야리아 자체가 치외법권이었기에 경찰 권력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었고 미군들이 외부에 나와 사고를 친다고 해도 SOFA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의 형사 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미군 군속 오○○은 “미군이 한국인(특히 양색시를) 대상으로 한 금전 사기행각이 많았는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속수무책이라고 하였고, 한국 여자들을 겁탈한 미군이 많았으나 부대 내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거의 공론화 되지 못했다”고 하였다.<sup>70)</sup> 증언자 박○○도 “미군들은 빨간 치마 입을 여자만 보면 몸 파는 여자인줄 알고 겁탈하려해서 이 근처에서는 밤에 여자들이 함부로 못 돌아 다녔다”고 했으며 미군 총

6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니 이 바구 들어봤나?』, 2016, 33~37쪽.

69) 증언자 서○○(1933년생 경남 양산 출신). 류승훈, 『미곡상에서 건자재상까지』,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 2015, 197~199쪽.

70) 황경숙, 『캠프 하야리아 용접공 30년』,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85쪽.

기사건에 대해서도 “미군들이 공장에 갔다 오는 여자를 총으로 쏘 죽였다.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미군이 여인에게 ‘너 도둑이냐’라고 물었고 영어를 잘 모르는 여자는 그냥 ‘오케이’라고 했는데 쏘 죽였다. 여하튼 여기는 무법천지였다”며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 해주었다.<sup>71)</sup>

범전동에서 벌어진 사건 중 가장 충격적으로 기지촌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사건은 300번지 앞 개천에서 발견된 ‘나체여인 살해사건’이다.<sup>72)</sup> 이 사건은 당시 중앙 수사기관과 미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치른 사건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미군 대상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이 여인을 그 한국인 동거남과 그의 동생이 살해한 사건”<sup>73)</sup> 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기지촌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른 채 당연히 미군의 소행으로 짐작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군기지와 미군에 대해 기지촌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의 아무런 추가적인 요구나 주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기지국가 미국을 받들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기지촌의 현실이었다.

### Ⅲ. 캠프 하야리아를 둘러싼 경합하는 시선들

기억은 경험의 소산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캠프 하야리아의 한국인 근무자와 기지촌 한국인들의 기억은 당사자들의 직접 경험에 의한 것들로서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인 틀로 엮어 ‘집단기억’으로 재구성이 가능하다.<sup>74)</sup> 반면에 대상에 대한 시선 즉 이미지는 주관적인 감

71) 황경숙, 『반평생 캠프 하야리아의 이웃』, 임시수도기념관 위 의 책, 258쪽.

72) 『경향신문』, 1962. 2.18.

73) 류승훈, 『미곡상에서 건자재상까지』, 임시수도기념관 위 의 책, 203쪽.

74) 직접경험과 관련하여 베르그송의 ‘습관적 기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베르그송은 신체 즉 신경계에 각인된 기억으로서 그 형성 과정에서 반복적인 노력이나 학습의 힘

각의 총체이다.<sup>75)</sup> 미군부대와 기지촌에 대한 경험이 없는 공간 밖의 타자들은 간접 매체를 통해 한정적인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이 캠프 하야리아의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에는 상상된 이미지나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타자들의 시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시선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캠프 하야리아를 배경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민족주의 시선을 검토할 것이다. 왜냐하면 캠프 하야리아 부지는 일제시기와 미군주둔기를 거쳐 외세 병력이 주둔하면서 저항과 순응의 민족적 감정이 민감하게 교차해온 장소이며 부산시민공원 조성 이후에도 식민지 이미지에 대한 기억전쟁을 통해 잠재되어 있던 민족주의가 분출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미관계의 거대 이미지 담론인 친미-민족주의가 ‘친미’라는 이미지를 통해 ‘혈맹’ 미국과 캠프 하야리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살펴본다. 둘째로는 반미-민족주의가 ‘반미’라는 이미지를 통해 ‘민족해방’의 관점에서 미국을 응시하는 관점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식민지 민족주의에 집착하는 부류들이 옥일기 문양을 둘러싸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1. 한미 혈맹과 친미의 시선

해방 후 한국에 입성한 미군은 제국주의 일본을 몰아내준 ‘낯선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점령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

이 필요한 기억을 ‘습관적 기억’이라 하였다. 앙리 베르그손 저, 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15, 429쪽.

75) 이미지와 관련하여 베르그송의 ‘순수기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베르그송은 ‘순수기억’이 근본적으로 잠재적이며, 이것은 ‘이미지 기억’이라는 표상적 형태로 구체화되고, 이미지 기억은 ‘운동적 도식’을 통해 현재 속에 삽입되면서 지각으로 현실화된다고 보았다. 앙리 베르그손, 위의 책, 438쪽.

남한의 보수우파 세력과 정치적으로 연대하였으나 거듭되는 실정으로 해방공간에서 미국의 인기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sup>76)</sup>는 점은 이채롭다. 주목할 것은 일제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친일파를 포함한 보수 우파의 거취 문제였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해방공간에서 보수 우파세력을 역사적으로 회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한국현대사를 주도한 지배엘리트들에게 친미 사대주의는 일종의 보호막이자 지향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국사회의 친미는 반공과 단짠을 이루며 ‘지배 이데올로기’ 혹은 ‘국가 프로젝트’가 되었다.”<sup>77)</sup>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정치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전쟁이 “그 이전까지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나 유보적 판단을 일소하고 친미와 반공을 정서적 수준에서 내면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나아가서 “친미주의와 반공주의는 ‘시민종교’의 차원으로까지 심화되었고 ‘미제(美帝)’에 대한 공포나 비판 대신 ‘미제(美製)’에 점차 적응하고 익숙’해지게 되었으며 그 후 오랫동안 “친미는 삶의 조건이었고 반미는 사회적 금기”였다.<sup>78)</sup>

민중 생활사 측면에서도 미국에 대한 근원적인 ‘고마움’의 이미지가 한국인에게는 존재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고마움’에 대한

76) 1946년 8월에 한국여론협회가 서울시민 4,7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위해 잘한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98%가 대답에 매우 긍정했고 단지 2%만이 ‘위생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 직전 미군정 정보부가 1,500마일을 돌면서 남한주민으로부터 청취한 광범위한 여론을 보면 “미군정의 위상과 인기는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다”고 되어있다. 당시 서울시민 3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제시대가 미군정보다 나은가?”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무려 63%인 250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전상인, 『반미의 역사 사회학』, 『비교사회』, 한국비교사회학회, 2003, 199쪽.

77) 전상인, 위의 논문, 201쪽.

78) 전상인, 위의 논문, 201~202쪽.

배경으로 먼저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한 미국 개신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선교사와 개신교회가 비록 ‘국가, 민족, 종교윤리’ 사이에서 흔들리고<sup>79)</sup> 일체로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한국인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와 교육 사업을 시행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80)</sup>

두 번째 ‘고마움’의 배경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이루어진 국제연합(UN)의 한국 전재민 원조가 있다. 원래 전재민 원조 업무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UNCAC)에서 1950년 9월부터 1955년까지 수행하였는데 “국제연합사령부를 통해 도입된 구호물자를 피난민, 적접지역으로부터 소개된 전재민, 고아원 등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한 인구집단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원을 남한의 행정조직과 연계해 배부하는”<sup>81)</sup>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들은 유엔의 원조를 당연히 미국의 원조로 받아들였고 사실상 미 8군이 직접 관할하였다.<sup>82)</sup> 그 외 요인으로 미군의 자체적인 전쟁고아 돌봄 봉사<sup>83)</sup> 전후 미국 측

79) 한국 개신교의 민족과 국가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는 다음 저서를 참고. 케네스 M. 웰스 저, 김인수 옮김, 『새 하나님, 새 민족』,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80) 초창기 한국 개신교의 역할에 대하여 정반대의 평가도 다수 존재한다. 이혜석은 “선교사 개개인은 복음전파라는 사명감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미국의 시장팽창이라는 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가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 구실을 하였으며, 선교사들 역시 제국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는 객관적 조건에 규제되어 있는한, 그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제국주의 세력에 협력하였다.”라고 하였다. 이혜석, 『한말 미국 선교사들은 무엇을 전파하였나』,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0, 257쪽.

81) 최원규, 『한국전쟁 중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의 전재민 구호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 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116~117쪽.

82) UNCAC는 실질적으로 미 8군을 기반으로 출범하였으며, 1953년 7월 이후에는 한국 원조사령부(KCAC)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UNC사령관의 지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미 8군의 한 부서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였다. 최원규, 위의 논문, 133쪽.

83) 전후 전쟁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들은 주로 민간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으나, 외원단체와 주한미군의 지원은 아동 보호 시설의 운영과 유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잠실의 성심원은 미 제34보충부대 군인들의 지원으로, 신당동의 명진보육원은 미 제5군에서 지원했다.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한국근현대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전쟁고아 해외입양<sup>84)</sup> 또한 전란을 겪은 한국인들에게 고마운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친미라는 거대담론 속에서 캠프 하야리아의 이미지를 미시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부산이라는 공간 속에서 60여 년 이상 자리한 부산의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의 이미지를 쉽게 언급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지의 주관성과 지역 지식의 한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우선 캠프 하야리아의 이미지 또한 ‘이미지’의 특성상 극히 추상적이며 주관적이다. 개별 대상의 이미지를 계량화할 수 없고 그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에르 노라가 “기억은 내가 하는 것이고, 기억의 대상도 바로 나다. 기억의 역사적 변환은 개인 심리로의 결정적 전환이라는 대가를 치렀다”<sup>85)</sup>고 한 것은 기억의 역사적 전이 과정에서 등장한 ‘기억의 주관성’ 또한 이미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캠프 하야리아의 이미지를 정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지역 지식(Local knowledge)’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부산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캠프 하야리아를 다루지만 정작 지역에서 직접 경험자를 제외하고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 쌓인 미군기지라는 세상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총체적인 ‘미국’이라는 거대 이미지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캠프 하야리아가 지역에서 공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만 인지할 뿐 지역민 스스로 또는 연구자들이 그것을 ‘지역 지식’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연구』 8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323쪽, 333~334쪽.

84) 1953년에서 1960년까지 해외 입양을 위한 민간설립 단체로는 천주교구제회(1955), 안식교성육원(1955), 홀트씨양자회(1956), 국제사회봉사회(1957) 등이 있는데, 이중 입양 인원은 홀트씨양자회(홀트아동복지회)가 단연 많고, 입양 국가 또한 미국이 주를 이룬다. 김아람,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 22, 역사문제연구소, 2009, 61쪽 <표2> 참조.

85) 피에르 노라 외 저, 앞의 책, 2010, 49쪽.

때때로 지역은 무엇인가 다를 것 같다는 환상을 갖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의 이미지가 중앙의 이미지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산 사람들이 캠프 하야리아를 보는 시선과 한국이 미국을 대하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에 지엽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확장하여 일반론으로 과장할 수 없음도 유념해야 한다. 클리퍼드 기어츠가 “한 국가 사회, 문명, 위대한 종교 등의 진수가 소위 ‘전형적인’ 소도시나 촌락에서 압축되고 단순화된 형태로 발견될 것이라는 믿음은 분명한 넌센스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소도시나 촌락에서 발견하는 것은 소도시 생활 혹은 촌락생활이다”<sup>86)</sup>라고 말한 것은 지역과 중앙, 부분과 전체의 철저한 공간적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미지가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간에 대한 ‘지역 지식’으로서의 이미지가 사라지면 이미지를 활용한 기억의 재현도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지역 사로서의 존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2. 기지반환 운동과 은폐된 반미의 시선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인의 심층에 자리 잡은 미국의 이미지는 단 기간에 변화되거나 극복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미국의 불명확한 자세와 그 후 군사독재정권 지지에 대한 소위 ‘미국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광주에서 시작한 반미운동은 부산의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거치면서 대학생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88 서울올림픽<sup>87)</sup>과 2002 한일월드컵<sup>88)</sup> 개최로 국민의 대외 자존감이

86) 클리퍼드 기어츠 저,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까치, 2017, 36쪽.

87) 강신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적 발전은 .... 한국인에게 세계사의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져다주었고, 서울올림픽은 “한국인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재창조하고 재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강신표, 『우리사회에 대한 성찰적 민족지』, 세창출판사, 2014, 223~225쪽.

높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여 반미운동 및 미군기지 반환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한 반미 기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3당 합당(1990)과 문민정부의 탄생(1992)과 함께 대외적인 반미 투쟁 동력을 상실하고 내부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잃은 채 대학가 학생운동의 구호 정도로 전락하고 있었다. 한편 그 후 2002년 소위 ‘효순·미선 사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불공정성 여부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2003년 ‘이라크 한국군 파병’은 명분과 종속성 사이의 갈등으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민족민주 진영의 재야운동단체에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을 결성하여(1991) 새로운 운동의 진로를 모색하였다. 이 중 ‘반외세 운동’은 민주민족운동의 본령으로서 ‘미군기지 철수’는 전국연합 사업목적의 하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이하 부산연합)’은 자주통일의 과제로서 미군기지 축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미군기지 하야리아 축출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1993), 기존 안의 명칭을 <부산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로 의결하고(1994),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부산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1995) 시민결의대회·반환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캠프 하야리아 반환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재야단체의 대표인 증언자 배○○은 캠프 하야리아 인근 부암동에서

88) 2002 한일월드컵에서 ‘미디어 퍼포먼스’를 통한 붉은악마 응원 연구를 통해 “월드컵 기간 동안 사람들은 붉은악마의 퍼포먼스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한국인으로서의 ‘하나의 경험의 구조’ 속에 참여”하였다고 보았다. 이기중 외, 『네트워크 사회’의 ‘미디어 퍼포먼스’에 관한 소고』, 『한국방송학회』 21(6), 한국방송학회, 2007, 397쪽.

25년간 거주하면서, 하야리아 주변의 주민들이 경제적 이해타산 때문에 하야리아 부지 반환을 지지하는 것이지 민족의식에 입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운동 방향을 이념 냄새가 나는 지도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해관계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와중에 부산연합 자주통일위에서 올라온 운동 명칭 안을 ‘미군기지 하야리아 축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부산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로 바꾸어버렸다. 집행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증언자가 설득하여 그대로 밀어붙였다. 미군기지 ‘축출’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시민들이 두려움을 가졌다면 ‘되찾기’라고 명칭을 바꿈으로써 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득한 것이다.<sup>89)</sup>

‘하야리아 땅 되찾기’ 시민운동을 현장에서 주도한 이○○의 증언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여론이 반환 쪽으로 바뀌면서 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자주 열렸다고 한다. 지역 언론의 관심도 커지면서 구의원, 주민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여 통제가 안 될 정도였다. 증언자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미군부대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1996년 제 15대 총선에 부산연합의 결의로 부산진 갑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선거 당시 증언자는 ‘하야리아 후보’로 불렸다. 증언자의 핵심 공약은 하야리아 미군부대 부지를 되찾고 시민공원을 조성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증언자의 지지도가 갑자기 오르자 다급해진 상대방 유력후보는 당초 언급조차 안 했던 하야리아 부지반환 공약을 선거막판에 내걸기도 했다.<sup>90)</sup>

시민 일반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선회한 계획은 주효했다. 이후 부산시와 여타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야리아 부지 부산시민공원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를 확대 결성하

89) 배○○(1934년생 부산 출신, 재야운동가, 부산연합 상임의장). 차성환, 『민족운동에서 하야리아 반환운동까지』,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 2015, 328쪽.

90) 이○○(1959년생 부산 우암동 출신, 재야운동가). 차성환, 『캠프 하야리아 반환 운동의 선봉에서』,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 340~341쪽.

고(2004), 부지반환 및 무상양여 축구 운동을 전개하면서 정치권 및 중앙 정부를 압박하여 마침내 부지를 반환받고 공원을 조성하였다. 부산연합 투쟁 목표의 변환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이들이 추진한 운동의 슬로건을 ‘미군축출’에서 ‘되찾기’ 운동으로 바꾼 단순한 용어의 전환이며, 둘째는 이들이 역사 서술의 주체로서 그들의 강경 반미 투쟁의 역사를 또 다른 부지반환이라는 시대적 담론으로 전환하여 노선을 수정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진보적 부산연합과 일반 시민운동단체, 심지어 보수단체까지 합세하여 ‘반미 민족운동’에 대한 투쟁과 성취를 함께 일구어낸 ‘집단기억’을 창출하였다. 특히 진보적인 시민운동가들과 관련 보수단체들은 이념과 성향이 상이한 부류들이었으나 ‘부지반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또 다른 ‘집단기억’의 정체성을 함께 간직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근 주민은 부지반환 이후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가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이해타산을 예상하게 되고, 공공기관 또한 사회적인 공적 이슈에 대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홍보가 필요하게 되면서 ‘부지반환’ 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확산되고, 나아가 시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당초 부산연합의 의도대로 하나의 ‘축제 마당’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sup>91)</sup>

그러나 적어도 일반 시민들이 가세한 ‘집단기억’ 참여는 당초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반외세 민족운동’과는 별개의 민족주의로 보아야 한다. 이들의 ‘부지반환 축제’는 국가와 사회를 향한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른 참여 의지의 발로로서 ‘시민참여 민족주의’<sup>92)</sup>의 형태를 띤다. 2005년 2

91) 당시 ‘캠프 하야리아 부지반환’을 위한 시민운동으로는 ‘부대 앞 목요집회’, ‘부지반환 서명운동’, ‘인간띠잇기’, ‘평화의 풍선 날리기’ 등이 있었는데, 참여자가 재야운동권에서 점차 시민단체 및 시민 일반으로 확대되면서 운동의 양상은 시민축제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월부터 8월까지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 운동본부’에서 실시된 하야리아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서명운동에서 당시 부산시 인구<sup>93)</sup>의 41.5%에 이르는 “152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sup>94)</sup>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캠프 하야리아를 향한 이미지와 시선을 ‘부지반환’이라는 집단기억으로 창출한 것이며 ‘시민참여 민족주의’가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여 이로 인해 부산시민공원 조성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기억’이 되었다고 본다.<sup>95)</sup>

### 3. 육일기 문양을 둘러싼 갈등과 민족주의의 시선들

캠프 하야리아에는 총 338동의 건축물이 있었으나 부산시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보존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기억의 장소’로 남아있는 건물은 24동에 불과하다. 그 중 장교클럽은 캠프 하야리아를 상징하는 대표 건물로 1949년 무렵에 지어져 1950년 1월에 문을 열어 ‘플라밍고클럽(Flamingo club)’, ‘해븐클럽(Haven club)’, ‘장교식당(Officer’s mess)’ 등의 명칭으로 불렸으며 장교들의 식사, 파티, 연회가 이루어지던 장소였다.<sup>96)</sup> 클럽 내부 천장 중앙에는 미 8군 견장(Shoulder strap:

92) ‘시민참여 민족주의’란 종래의 식민지형, 관주도형, 좌우대립형, 반외세형 민족주의를 탈피하여 시민 다수의 의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민족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로 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시민참여 민족주의의 결과물로 최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혁명’을 들 수 있겠다.

93) 2005년 당시 부산 인구는 3,657,840명이다. 부산광역시, <부산통계> <http://www.busan.go.kr/bhstatistics02>(검색일: 2018. 6. 12).

94) 허운영, 『캠프 하야리아 반환 과정의 역사: 시민운동 차원』, 『부산의 꿈』, 하야리아공원포럼, 미세움, 2011, 40쪽.

95) 얀 아스만(Jan Assmann)과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부부는 “기억이 문화적 창조물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알박스의 ‘집단기억’ 이론의 한계·‘집단기억’의 조작성, 개인과 집단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기억을 떠나면 ‘기원’에 소환할 수 있는 매체를 동원하여 ‘문화적 기억’으로 보완했다. 태지호, 앞의 책(2014), 44쪽.

96) 유현, 앞의 논문, 2015, 476쪽.

붉은색 8각도형 내부에 흰색 십자가 문양이 붙어있고, 그 주위를 8개의 별(미 8군을 상징)이 둘러싸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20개의 붉은색 선이 방사형으로 뻗어 있다. 장교클럽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현재 부산시민공원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0년 ‘캠프 하야리아 부지 임시개방 행사’를 통해 장교클럽의 존재가 외부에 처음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언론을 통해 ‘잘못 확산된’ 정보는 첫째, 장교클럽이 일제시기 만들어진 마권판매소이며 둘째, 천장에는 일제를 상징하는 육일기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천장 문양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란은 2014년 부산시민공원이 개장한 이후 일간신문 기사에 의해 촉발되었다.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천장에 육일기 문양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sup>97)</sup>는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관련 댓글 2,500여 건 이상, 포털검색사이트 상위 5에 오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곧이어 극우사이트 회원들의 항의가 잇달았고 특히 광복회 부산지부에서는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항의 방문을 하면서 천장 문양의 철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sup>98)</sup>

부산시에서는 장교클럽이 1949년 경 미군 주둔기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항공사진을 근거로 제시하고,<sup>99)</sup> 천장 문양은 미 8군을 상징하는 디

97) 『연합뉴스』 2014년 5월 21일,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천장에 육일기 문양 논란’.

98) 원래 광복회부산지부와 극우사이트 회원들은 정반대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었다. 전자가 단체의 정체성 유지와 대외적인 활동역량을 홍보하기 위해 항의에 적극 뛰어든 반면, 후자는 개인적인 성취감과 그들이 속한 집단 내부에서 자기 과시를 위해 개별적으로 항의를 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후자의 경우 항의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되어 슬그머니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1년 이상 갈등을 겪은 전자와 차이를 보인다. 유현, 위의 논문, 2015, 480쪽.

99) 부산광역시, 『미 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 2013, 85쪽, 122쪽. 천장 문양 논란이 마무리 된지 얼마 후 장교클럽 건립 연대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자가 나타났다. 증언자 이○○(1930년생 부산 출신)은 1950년 당시 약관의 젊은 나이에 장교클럽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증언자가 이 건물의 건립일을 기억하는 것은 1950년 초 증언자가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과 함께 장교클럽 신축 기념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 사진은 시민공원역사관에 기증했다. ‘기억의 역사’를 서술

자인이라는 점을 육일기 문양과 비교 제시<sup>100)</sup>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복회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천장 문양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마침내 역사학자 등 관계 전문가와 광복회부산지부가 함께 참가하는 자문회의를 개최<sup>101)</sup>하였으나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상호 대립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역사적으로는 ‘육일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육일기’ 문양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흔적은 후세를 위해 남겨야한다”는 존치의 주장과, “그것이 ‘육일기’ 문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연상시키는 문양이라면 민족의 치욕과 아픔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기에 당장 없애야한다”는 철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sup>102)</sup> 결국 부산시에서는 논란이 된 시민공원역사관 천장을 원형 그대로 유지 보존하되, 시각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천장 문양에 대하여 가림막을 설치하는 임시변통 안을 채택하여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천장 문양의 철거 논란에 대한 찬반 양측은 물론, 캠프 하야리아의 반환을 기억하는 모든 부산시민들에게는 되찾은 부지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의 확보라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같은 민족주의 입장이라도 대상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에 따라 수반되는 결과는 달라진다. 즉 천장 문양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일제의 육일기 이미지가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인 반면, 광복회부산지부는 식민지 민족주의에서 출발한 집단의 성격상 육일기와 같은 일제의 잔재 이미지는 청산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

함에 있어서 구술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유현, 위의 논문, 476쪽.

100) 유현, 위의 논문, 490~492쪽.

101) 부산박물관,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천장 문양 관련 자문회의 개최>(2015.01.28)

102) 유현, 위의 논문, 482쪽.

이는 한국의 친미-민족주의가 ‘친미’의 이미지를 통해 미국을 ‘혈맹’의 시선으로 바라본 반면, 반미-민족주의는 ‘반미’의 이미지를 통해 ‘민족해방’의 관점에서 미국을 응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시민공원 명칭 선정 과정에서 ‘캠프 하야리아’의 역사성을 살려서 ‘하야리아공원’으로 명칭을 정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 측에서는 미제의 식민지 종속성을 다시 재현하는 명칭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경우가 있었다.<sup>103)</sup> 전자 측에서는 캠프 하야리아의 이미지를 미래 활용가치를 고려한 개방적 이미지로 받아들인 반면, 후자 측에서는 반미운동의 연장선에서 되찾아야 할 이미지로 본 것이다.

한편 일제의 이미지를 청산하려는 광복회부산지부의 시선은 “자신들을 세습적 희생자(Hereditary victim)로 인식한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Victimhood nationalism)”에 부합한다. 대부분 항일독립 투사의 2세와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광복회원들은 일제 식민지기를 철저히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일제의 희생자라는 인식을 갖는다. 이렇게 형성된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특권화하고 가해 민족에게는 ‘집단적 유죄(Collective guilty)’의 굴레를 씌워서, “일본 민족=가해자=집단 유죄, 한국 민족=식민주의 피해자=집단 무죄라는 대립항을 상정”하고 모든 민족적 가치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 결과 가해자인 일제의 이미지와 잔재는 모두 청산되어야 하며 청산을 위한 피해 민족의 모든 행위는 스스로 정당화된다.<sup>104)</sup>

103) 『부산일보』 2010. 4. 8., ‘부산 하야리아 공원 명칭 선정 논란’.

104) 임지현,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홀로코스트 종교를 넘어서』, 종교인 네트워크 2009년 상반기 열린포럼 참고자료, 2009, 전체 요약. 그 외 인터넷 강좌 자료가 있다. 임지현,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와 대중독재의 기억>, 아트앤스터디 인문특강, 2006. 사이트: [https://www.artnstudy.com/n\\_Lecture/?LessonIdx=jhlim001&LessonPart=100](https://www.artnstudy.com/n_Lecture/?LessonIdx=jhlim001&LessonPart=100)(검색일: 2018. 1. 12).

#### IV. 맺음말

캠프 하야리아의 설치 배경으로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지망을 전 세계에 구축한 기지국가라는 점이다. 일부 부산시민은 캠프 하야리아가 미국의 거대한 군사제국에 속한 군사기지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지도 모른다. 미국은 모든 위협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동원군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전진 태세(Forward posture)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잠재적인 모든 적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거대한 기지망과 수십만 명의 병력을 상시 주둔시키는 것이다.<sup>105)</sup>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애써 간과해온 부산의 리틀아메리카로서 캠프 하야리아가 존재했던 이유이다.

아울러 미국이 군사를 움직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하여 마이클 헌트는 “미국 역사를 장기적으로 지속시켜온 역사의 심층을 지속적으로 관류하는 개념으로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주목하였다.<sup>106)</sup> 그는 “건국 이후 미국 외교를 지배해온 세 가지 이데올로기, 즉 ‘미국은 항상 위대하다’는 국민적 자의식, ‘인종 간에는 위계적 서열이 있다’는 인종주의, ‘급진주의와 혁명은 위험하다’라는 반급진주의”를 미국의 역사에서 추출해냈다.<sup>107)</sup> 결국 세계질서의 작동 방식에 대하여 미국인들이 고수하는 이데올로기가 한국에서 미국의 군사기지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의 첫 번째 의의는 캠프와 기지촌 일대의 구술조사 기록을 바탕

105) 데이비드 바인, 앞의 책, 2017, 56~60쪽 요약.

106) 마이클 H. 헌트 저, 권용립·이현휘 옮김, 『이데올로기와 미국 외교』, 산지니, 2007, 15쪽.

107) 마이클 H. 헌트, 위의 책, 7쪽.

으로 리틀아메리카와 범전동 본동마을 기지촌에서 살았던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기록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지금은 사라진 캠프 하야리아를 향후 ‘기억의 장소’로 간직할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피에르 노라가 ‘기억의 장소’ 존재 목적이 “기념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역사는 그것들을 즉각 청소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점은 본고와 부합하는 지점이다.<sup>108)</sup>

따라서 미시적으로는 먼저 리틀아메리카에서 한국인들이 채용되고 근무하면서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그들이 느꼈을 미군에 대한 인종차별과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담장 밖 한국인에 대하여 어떠한 우월의식을 가졌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지촌 사람들이 미군과 경제생활체를 구성하여 교류를 한 과정과 문화적 소통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캠프 하야리아와 기지촌의 한국인들이 치러야 할 환경적 및 사회적 부담도 있었으니 그것 또한 그들의 현실이었다.

두 번째 의의는 캠프 하야리아를 흐르는 가장 큰 기류의 문화적 매체로서 ‘민족주의’에 주목하였다는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철조망과 담을 경계로 미국과 한국의 영역이 나누어 졌으며, 기지촌은 문화적으로는 한국 땅도 미국 땅도 아닌 ‘혼성공간(Over there)’<sup>109)</sup>에 속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군과 동거하는 양색시들의 달셋방이 있고, 300번지 성매매지역이 있었으며, 귀한 PX물품이 흘러 넘쳤으며, 미군을 호객하는 클럽과 기념품점, 양복점 등으로 즐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캠프 하야리아를 응시하는 세 가지 민족주의 시선이 존재하였다. 한미관계의 거대 이미지 담론인 친미-민족주의의 시선은 미국에 대한 근

108) 피에르 노라 외 저, 앞의 책, 2010, 42쪽.

109) 이 혼성공간은 치외법권적인 군사기지와 미군병사와 지역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는 곳을 말한다. 문승수·마리아 혼, 앞의 책, 2017, 53쪽.

원적인 고마움으로 가득 차있었다. 이에 반해 반미-민족주의는 ‘민족해방’의 관점에서 반미운동, 미군축출, 미군기지 반환운동 등을 수행해가면서 그들의 존재감을 시민사회에 각인 시켰다, 한편 식민지 민족주의의 전통을 이으면서 다시 부활한 민족주의 시선은 시민공원 내 장교클럽이라는 기억의 장소를 일체의 잔재로 상정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본고의 화두는 지금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기억의 장소로만 존재하는 부산의 리틀아메리카, 캠프 하야리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정된 역사 텍스트를 보완하기 위해 구술자들의 기억을 따라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갔다. 거기서 원초적 기억인 ‘이미지’를 만났고 그것이 역사의 자물쇠를 풀어줄 만능키가 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져왔다. 이미지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었으며 실증적인 계량화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증언자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들의 시선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캠프 하야리아와 관련된 다성적이고 다층적인 목소리를 미약하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필자가 해야 할 책무는 역사적 기억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국제관계의 현장 속에서 냉정하게 국내 사정을 분석하고 향후 국제 전망을 제시하면서, 본고에서 제시한 역사적 담론이 얼마나 그 가치를 발하는 지를 검증해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필자의 능력 범위는 넘어서는 것이며 스스로 역사학의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기에 또 다른 전문가의 손길을 기대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1』, 20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2016.  
부산시민공원역사관, 『부산시민공원역사관: 2014 상설전시도록』, 2014.  
임시수도기념관, 『낮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2015.  
하야리아공원포럼, 『부산의 꿈: 캠프 하야리아의 시민공원 만들기』, 미세움, 2011.  
D. Colt Denfeld, 『American military camps in the Republic of Korea, 1866-1996』, Pacific Bases Research, 1997.

2. 저서

- 강신표, 『우리사회에 대한 성찰적 민족지』, 세창출판사, 2014.  
데이비드 바인 저, 유강은 역, 『기지국가』, 갈마바람, 2017.  
리처드 도킨스 저, 이한음 역,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7.  
마빈 헤리스 저, 박종렬 옮김,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1995.  
마이클 H. 힌트 저, 권용림·이현휘 옮김, 『이데올로기와 미국 외교』, 산지니, 2007.  
문승숙·마리아 혼 역음, 이현숙 옮김, 『오버테어』, 그린비, 2017.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4.  
브루스 커밍스 저, 김동노 외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001.  
양리 베르그손 저, 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15.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5.  
케네스 M. 웰스 저, 김인수 옮김, 『새 하나님, 새 민족』,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클리퍼드 기어츠 저,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까치, 2017.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피에르 노라 외 저, 김인중 외 역, 『기억의 장소』 1~5, 나남, 2010.

3. 논문

- 김아람,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 22, 역사문제연구소, 2009.

- 김준현,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군 관련 풍속에 대한 대중 인식변화」, 『한국민족문화』 (5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김학이, 「민족의 기억, 민족의 상상」, 『현대의 기억 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 세종출판사, 2006.
-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한국근현대사연구』 8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PX 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 안미정, 「부산 미군 하야리아부대의 공간적 변용과 의미」, 『지방사와 지방 문화』 16, 역사문화학회, 2013.
- 유 현, 「부산시민공원역사관 내 도입부 천장의 문양을 둘러싼 논란과 기억의 표상」, 『석당논총』 70, 석당학술원, 2018.
- 이기중 외, 「‘네트워크 사회’의 ‘미디어 퍼포먼스’에 관한 소고」, 『한국방송학보』 21(6), 한국방송학회, 2007.
- 이혜석, 「한말 미국 선교사들은 무엇을 전파하였나」,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0.
- 전상인, 「반미의 역사 사회학」, 『비교사회』, 한국비교사회학회, 2003.
- 차철욱, 「하야리아부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로컬리티」, 『지역과 역사』 28, 부경역사연구소, 2011.
- 최원규, 「한국전쟁 중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의 전재민 구호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 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투고일 : 2018. 11. 12. 심사완료일 : 2018. 12. 12. 게재확정일 : 2018. 12. 14.

| Abstract |

From Little America to Busan citizens park  
- The memories and gazes around the Camp Hialeah -

Yoo, Hyeon

Camp Hialeah was set up as the U.S. military's Busan base command during the Korean War. It has since been an advanced U.S. overseas base operated as Little America for long-term U.S. military presence under the Cold War regime with the Soviet Union and a standoff with North Korea.

Camp Hialeah was shut down in 2006 by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opening of Busan Citizens' Park in 2014, historical memories of the land have been rapidly forgotten. In addition, the village of Bondong in Bumjeon-dong, which used to be a base town near Camp Hayaria, was incorporated into the park site. And their way of life and various stories have also disappeared into history.

The first significance of the paper is that based on oral records of camps and base villages, Koreans who lived in the base towns of Little America and the Bondong Village in Bumjeon-dong have recorded the way of life and confirmed its historical value. Therefore,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preserve the now-defunct Camp Hialeah as a "place of memory" in the future. Koreans belonging to Little America had to overcome racism and inferiority by the U.S. military while embracing American culture. The village of Bondong in Bumjeon-dong near Camp Hialeah was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base village through exchanges with the U.S. military. People here have formed an economic community and a cultural community with the U.S. military. However, it also had to pay the corresponding

environmental and social costs.

The second significance is that it has paid attention to ‘nationalism’ as a cultural medium that flows from Camp Hialeah to Busan citizens park. There were three gazes of nationalism about Camp Hialeah. The gaze of pro-U.S.-nationalism, the meta-discourse of Korea-U.S. relations, was filled with fundamental gratitude to the U.S. Anti-U.S.-nationalism, on the other hand, has inspired civil society to recognize their presence by carrying out anti-U.S. movements, ousting U.S. troops and a campaign to return U.S. bases from the perspective of "ethnic liberation." Meanwhile, the gaze of nationalism, which were revived following the tradition of colonial nationalism, put the site of the memory of the officers’ club in the Busan citizens park as the vestige of the Japanese Empire and tried to clean it up.

**Key word** : Little America, Busan citizens park, Camp Hialeah, memory, nationalism, U.S. military base

